

경남체육

Gyeongnam Sports



경상남도체육회
GYEONGSANGNAMDO SPORTS COUNCIL

2016
12
Vol.22



신년사

04 경상남도체육회장 홍준표

특별기고문

06 통합 체육회에 바란다

찾아슈

08 도체육회, 18개 시·군체육회 및 63개 도종목단체 통합 완료

기획특집

10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종합 5위로 16년 연속 상위권 달성

12 20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선의 경쟁 펼쳐

14 경남체육 꿈나무, 제45회 전국소년체전 4위 달성

15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2개, 동5개 획득

16 제55회 도민체육대회 '열정과 투혼' 발휘

20 제27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성료

24 제11회 경상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역대 최대 규모로 성황

올림픽스페셜

26 경남을 빛낸 리우올림픽 스타

인사이드 경남체육

28 경남초·중학생종합체육대회 성료

29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운영

30 제10회 경남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31 미드림(美-Dream)스포츠 공모사업에 선정

32 러시아·일본·중국과 스포츠 국제 교류

33 생활체육 안전교실 운영

34 도내 4개 시·군 7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35 생활체육 광장에서 '스포츠7330' 실천해요~

뉴스라인

36 경상남도체육회

39 대한체육회

경남체육 유망주

40 경남체고 이희섭 선수의 삶을 바꾼준 복싱

42 차세대 양궁 기대주 등장

스포츠팀

44 실업배구 강자 양산시청 여자배구단

화제의 동호인

46 함안 조수제 동호인, 게이트볼 달인에 도전

스포츠탐방

48 김해 인공암벽장

경남체육을 빛낸 유공자

52 2016년 경남체육을 빛낸 유공자

55 포토갤러리

62 스포츠공제 안내

64 건강플러스

Cover Story



제97회 전국체전
역도 3관왕을 차지한
경남체고 이해주 선수

발행인 홍준표 회장
발행처 도체육회 사업부
전화 055-264-4161, 299-7330
홈페이지 www.gnsports.or.kr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창원종합운동장내 166호)

편집인 배희욱 사무처장
발행일 2016년 12월 28일
팩스 055-264-4164, 255-4944
디자인/인쇄 삼영기업



함께 힘을 모아 경남체육의 위상을 보여줘야!



존경하는 경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체육 가족 여러분!

정유년(丁酉年)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아침을 여는 붉은 닭의 기상처럼 올 한해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2016년은 참으로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경남 체육의 양대 산맥으로 체육 발전을 이끌어 온 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하나로 통합하는 큰 결실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두 단체의 통합으로 우리 경남 체육은 더 당당한 발걸음으로 더욱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단순한 외형의 통합 뿐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로 이어주신 체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해에는 제97회 전국체전에서 종합 5위로 무려 16년 연속 상위권을 달성하고 2016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에서도 경남 체육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55회 도민체전과 제27회 도 생활체육대축전도 단 한건의 사건·사고도 없이 성대하게 잘 치뤄졌습니다.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전통스포츠 보급, 생활체육 강습 및 프로그램 지원, 체육분야 국제교류 등 많은 단위사업을 통해 도민의 체육활동 참여 확산과 더불어 경남 체육 진흥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체육인 여러분!

2017년 우리 경남 체육은 생활체육의 토양 위에 전문체육이 꽃 피우는 선진국형 체육 선순환구조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먼저, 도민 누구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스포츠강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우수한 체육인재를 발굴해 나가고, 엘리트선수들이 생활체육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함께 나아가는 당당한 경남체육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은 점점 더 스포츠와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체육활동을 통해 개인의 건강의 지키고, 이웃과 친목을 다지고, 지역사회가 화합하는 시대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활력 넘치는 삶이 바로 우리 경상남도 발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7년 새해에는 '도민 건강! 도민 행복! 도민 화합!'을 위해 체육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체육회장 **홍준표**



“ 통합 체육회에 바란다



이 강 현(창원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지난 2월 29일 경남체육은 도체육회와 도생활체육회 관계자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 체육단체통합을 이루어냈다. 체육회는 지금까지 16년 연속 전국체전 상위권을 달성하는 찬란한 금자탑을 쌓았고, 생활체육회 역시 도민의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누리도록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도내 체육인들의 축복 속에 출범한 통합 체육회를 통해 체육의 저변이 넓어지고 도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즐기므로써 건강과 행복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향후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오던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발전추세가 꺾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은 발전배경이 다르고 문화적 위상도 다르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분야는 전혀 다른 원리적 토대를 가지며 추구하는 목적, 대상, 내용, 추진방법 등도 다르다. 우리가 어렵게 통합을 이룬 만큼 통합의 부작용은 최소화 하고 통합의 효과는 극대화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분야 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키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둘째, 학교 및 지역 스포츠클럽과 자생적 동호인조직을 육성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자생적 동호인 조직은 체육발전의 핵심적 요소이자 지역과 직장체육 활동의 기초적 단위로서 지역사회 의 결속 및 건전 사회풍토 조성, 집단목표의 달성 및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의 수단이 된다. 스포츠클럽과 동호인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기반이 튼튼해진 생활체육을 배경으로 엘리트체육을 꽃피울 수 있고 이른바 스포츠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셋째, 체육회와 도교육청에서 개최하고 있는 종합경기대회의 역할 증폭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회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55년을 이어온 경남도민체전의 경우 점점 대회 규모가 커져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개최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도민의 사랑을 받는 도민체전이 되기 위해서는 도민체전의 규모를 축소하고 경기력 수준을 높여야 하며 화합 저해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체전규모의 축소는 출전수가 적은 종목을 중심으로 폐지하거나 채점종목으로 전환하고 시·군별로 참가할 수 있는 종목 수를 제한함으로써 가능하다. 고등부의 경우 학생종합체육대회로 이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도민체전은 규모를 줄여 모든 시·군이 돌아가면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넷째, 통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무처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경남 최고의 민간체육행정기구인 체육회의 위상에 걸맞게 정책과 홍보, 교류와 협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조직은 통합 이전의 부서를 그대로 옮겨 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지원업무가 손상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서를 통폐합하여 3개부서 정도로 재편하되 각 부에는 각각의 업무에 특화된 2~4개의 팀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체육회는 자치단체의 체육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경남체육 발전을 위한 비전을 갖고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관주도의 정책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타율적, 구속적, 의무적인 측면이 강하고, 가시적 성과와 실적, 전시효과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체육 분야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다섯째, 체육회는 자치단체가 체육예산을 늘리고 그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 경남체육 발전을 위한 여러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는 적정 규모의 체육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경남의 체육예산은 전체예산의 0.83%로 광역단체 평균 1.34%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경남소속 시군의 평균 체육예산은 전체예산의 1.55%로 전국의 기초단체 평균 1.9%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향후 도민들의 체육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 폭이 증대됨으로써 체육재정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대될 것이다.

앞으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은 병행해서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것이 체육단체 통합의 가장 큰 명분이고 당위성이다. 저변이 튼튼한 생활체육의 토양 속에서 엘리트체육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체육회는 체육활동이 도민 모두의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보편화되어 성과 연령, 신체조건, 지역 및 사회계층에 구애됨이 없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펴 나아가길 바란다.





도체육회, 18개 시군체육회 및 63개 도종목단체 통합 완료

통합 추진 배경

체육단체 통합을 추진한 시발점이자 법적 근거는 지난해 3월 3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엘리트 체육을 담당했던 구)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총괄한 구)국민생활체육회를 하나로 합쳐 한국스포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구)대한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는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열여섯 차례 회의를 거쳐 마침내 지난 2월 15일 창립 총회를 열고 한 가족이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전국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 등은 중앙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엘리트와 생활체육으로 양분된 각 단체 통합 추진에 돌입했다.

경남은 통합 체육회 출범이 있기까지 지난해 11월 통합지원단이 구성되고, 12월 통합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통합 체육회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구)도체육회와 구)도생활체육회는 금년 1월 이사회, 2월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각각 통합을 결의하고 해산하였다.

통합 체육회 창립총회 갖고 초대회장에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가 맡아

지난 2월 29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구)도체육회와 구)도생활체육회를 하나로 합친 통합 체육회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초대회장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맡게 되었다. 홍준표 회장은 창립 총회 직후 가진 현판식에서 통합을 계기로 체육인끼리 자리다툼이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경남체육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도록 당부하였다.

종목단체 통합 추진 설명회 개최

도체육회는 지난 3월 22일과 6월 21일 2차례에 걸쳐 종목단체 통합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종목단체의 회장선거 방식이 변경되는 등 대한체육회의 지침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가운데 오랫동안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어 왔던 단체의 통합을 원만히 이끌기 위해 노력해왔다. 도체육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양 단체가 있는 통합대상 31개 종목단체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단일 종목단체만 있는 비통합대상 32개 종목단체로 나눠 서로 머리를 맞대며 화합을 이끌었다. 일부 단체는 상호간의 이해 부족으로 기득권을 내세우며 불협화음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양측 간의 주장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회원단체 통합 완료

도종목단체는 구)도체육회 51개 가맹경기단체와 구)도생활체육회 47개 종목별연합회가 그 동안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구분되어 별개의 종목단체로 활동하면서 종목의 보급과 저변 확산에 크게 기여해 왔다. 지난 12월 1일 도태권도협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함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모두 통합이 완료되었다. 개별 종목단체는 중앙종목단체와 도체육회의 임원인준 절차를 거쳐 각 종목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모색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도내 18개 시·군은 지난 6월 1일 거제시체육회와 통영시체육회를 끝으로 통합을 마무리했다.

통합 이후 과제

체육단체를 통합하는 가장 큰 목적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지난 10년 간 체육계의 쟁점이었던 학교체육·엘리트체육·생활체육의 연계는 물론 엘리트선수의 발굴과 육성, 그리고 평생체육으로 이어지는 선진화된 스포츠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이 서로 선순환하는 구조 속에서 효율적으로 발전해서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이 엘리트체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초석이 되고, 엘리트선수는 은퇴 후에 생활체육지도자로 이어져 경남체육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모든 도민이 스포츠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통합 체육단체의 역할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통합 사업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스포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통합 체육회를 기대해 본다.



도체육회 및 회원단체 통합 추진 경과

- 2015. 11. 12 : 통합준비 추진지원단 13명 구성·운영[경상남도5, 구)도체육회4, 구)도생활체육회4]
- 2015. 12. 14 : 통합준비위원회 9명 구성·운영[경상남도2, 도의회1, 구)도체육회3, 구)도생활체육회3]
- 2016. 1. 28 : 구)경상남도체육회 이사회(해산 의결)
- 2016. 1. 29 : 구)경상남도생활체육회 이사회(해산 의결)
- 2016. 2. 3 : 구)경상남도체육회 대의원총회 총회(해산 의결)
- 2016. 2. 19 : 구)경상남도생활체육회 대의원총회 총회(해산 의결)
- 2016. 2. 29 : 통합 경상남도체육회 창립 총회
- 2016. 3. 22 : 도종목단체 통합 추진 1차 설명회 개최
- 2016. 6. 1 : 18개 시·군체육회 통합 완료
- 2016. 6. 21 : 도종목단체 통합 추진 2차 설명회 개최
- 2016. 8. 24 : 미통합 종목단체 통합 추진방침 이사회 의결
- 2016. 9. 20 : 미통합 종목단체 대상 관계관 회의 개최
- 2016. 9. 22 : 미통합 종목단체 대상 임원심의회위원회 개최
- 2016. 10. 17 : 태권도 종목단체 통합 추진 의견 개진 회의 개최
- 2016. 12. 1 : 회원종목 63개 단체 통합(창립총회) 완료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종합 5위로 16년 연속 상위권 달성



소프트볼 · 철인3종 종합1위

롤러(남자일반부) 3000m계주 한국신기록 달성

3관왕 6명, 2관왕 9명 등 금메달 84개, 은메달 57개, 동메달 101개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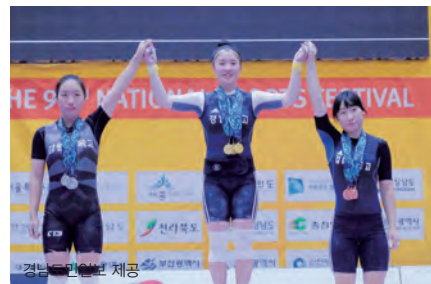
지난 10월 7부터 13일까지 충청남도 일원에서 열린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 46개 종목(시범종목 2개 포함)에 1,666명의 선수단(임원 397명, 선수 1,269명)이 참가한 경남은 경기, 충남, 서울, 경북에 이어 종합 5위로 대회를 마치며 16년 연속 상위권을 달성했다.



메달수(금메달 84개, 은메달 57개, 동메달 101개)로는 사상 최고의 메달을 획득했던 지난해 대회에는 못 미쳤지만, 우수 선수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경기와 서울, 개최지의 이점을 안은 충남, 국군체육부대(상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북에 이어 5위를 하면서 경남체육의 저력을 과시했다.



경남도민일보 제공



경남도민일보 제공



경남도민일보 제공



경남도민일보 제공



경남도민일보 제공



경남도민일보 제공

여자 일반부가 우승을 한 소프트볼(도체육회)과 김지환(통영시청)이 2관왕에 올랐던 철인3종이 각각 종목 종합 1위를 했다. 농구와 사격, 보디빌딩 등 3종목은 종합 2위, 정구, 배구, 역도, 롤러, 세일링, 우슈 등 6개 종목은 종합 3위를 했다. 이 중 역도는 경남이 출전한 종목 중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하면서 효자 종목임을 입증했다.

경남은 3관왕 6명과 2관왕 9명을 배출했다. 역도 여자 고등부 53kg급 이해주(경남체고)가 인상·용상·합계에서 1위에 오르면서 경남 첫 3관왕이 됐으며, 자전거 여자 고등부 김수현(창원경일여고)도 500m 독주·단체스프린트·경륜에서 1위를 하면서 2년 연속 3관왕에 올랐다. 역도 남자 고등부 85kg급 방서현(경남체고)과 94kg급 황인창(경남체고)은 인상·용상·합계, 자전거 남자 고등부 정윤희(창원기계공고)은 단체스프린트·경륜·스프린트, 체조 남자 일반부 유원철(도체육회)은 평행봉·링·개인종합에서 1위에 오르며 금메달 3개씩을 목에 걸었다.

또 수영 남자 고등부 양재훈(경남체고), 수영 남자 일반부 김영남(국민체육진흥공단), 역도 남자 일반부 62kg급 한명목(경남도청), 역도 남자 일반부 94kg급 박한웅(한국체대), 사격 남자 일반부 김종현(창원시청), 체조 남자 일반부 류주선(도체육회), 체조 고등부 장혜빈(거제육포고), 롤러 남자 일반부 손근성(경남도청), 철인3종 김지환(통영시청)은 2관왕이 됐다.

특히 경남은 롤러 남자 일반부(경남도청) 3000m계주에서 3분51초129의 기록으로 한국신기록, 자전거 여자 고등부 김수현(창원경일여고)은 500m 독주에서 35초716으로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경남체육의 미래’인 경남체육고등학교는 금 17개, 은 9개, 동 18개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지난해(금 18개, 은 21개, 동 18개)보다는 줄었지만, 금메달이 평균 10개에 머물렀던 예년에 비해선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경남의 전국체육대회 16년 연속 상위권 진입에 기여했다. 경남 고등부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어든 금메달 30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33개를 획득했다.

축구 남자 일반부와 세팍타크로 남자 일반부는 메달권에 진입 못하고 탈락했으며, 기초종목인 육상, 수영, 체조 중 육상·수영의 보강도 절실하다.

16년 연속 상위권으로 이끈 배희욱 총감독은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홍준표 회장님과 동계훈련을 시작으로 하계 훈련을 잘 마치고 좋은 성적과 결과를 내준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20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선의의 경쟁 펼쳐

지난 5월 26일부터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개최된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한마당 축제인 '20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5월 29일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축전에 33개 종목에 1,209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경남은 개회식 선수단 입장식에서 17개 시·도중 첫 번째 순서로 입장하면서 '화합·통합으로 당당한 경남체육'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채무제로 달성' 퍼포먼스를 효과적으로 연출·홍보하여 대회관계자 및 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경남은 자전거와 줄넘기 종목에서 종합준우승, 국학기공과 탁구 종목에서 종합3위를 하는 쾌거를 이뤘다. 자전거 도로경기(여자부 그랜드마스터)와 트랙경기(여자부 그랜드마스터)에서 윤금순이 2관왕, 강동욱 MTB 남자부(시니어) 1위,곽진영은 MTB 여자부(베테랑) 1위를 차지해 종합준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또 줄넘기는 세부종목에서 골고루 상위권을 차지해 종합준우승을 거머쥐었다.

지역·계층을 뛰어넘은 화합의 장으로 펼쳐진 이번 대축전은 정식종목 36개, 시범종목 10개 등 모두 46개 종목에 약 2만여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출전해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뽐냈다. 16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대한체육회와 서울특별시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체육회,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가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했다.

한편 2017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내년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경남체육 꿈나무, 제45회 전국소년체전



금36 · 은36 · 동45 지난해보다 한 계단 순위 상승
부별 MVP 8명 배출 · 신기록 6개 수립도 성과

지난 5월 28일부터 나흘간 강원도 일원에서 열린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경남 선수단은 34개 종목에 1,123명(임원 324 · 선수 799)의 선수단이 참가해 모두 117개(금 36, 은 36, 동 45개)의 메달을 획득해 경기, 서울, 경북에 이어 종합 4위(금메달 순위)에 올랐다.

축구 이은규(남해초6), 야구 강태경(마산동중3), 농구 엄서이(삼천포여중3), 양궁 임정민(밀주초6), 하키 조현우(김해서중3), 롤러 이호탁(분성초6) · 김이지(자은초6), 골프 신다인(창원대산중3), 승마 현주찬(함양중1) 등 모두 9명의 종목별 최우수 선수가 탄생했다.

또 자전거 박수란(200m · 500m 독주, 진영여중3), 양궁 이예진(25m, 밀주초6), 육상 김예찬(포환던지기, 거제국산초6), 양궁 이예진 · 김보영 · 임정민 · 구지수(여초 단체종합), 수영 장인석(접영100m) 등이 7개 부문에서 신기록을 만들었다.

최승환(거제대성중 3)은 역도 69kg급에서 3관왕(인상, 용상, 합계), 임정민(밀주초6)은 양궁에서 3관왕(20m, 35m, 단체종합)이 됐다. 롤러 김이지(3000m 포인트, 300mT.R.) · 이호탁(3000m 포인트, 1000m), 양궁 이예진(25m, 단체종합), 에어로빅 권준(개인전, 5인조), 역도 63kg 이지수(용상, 합계)는 2관왕에 올랐다.



제97회 전국동계체전에서 금2개, 동5개 획득



지난 2월 26일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 2개, 동 5개를 획득한 경남선수단은 12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지난해 금 4, 은 2, 동 3개를 따내 종합득점 198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13위를 기록했던 경남은 올해 메달 수와 득점은 줄었지만 순위는 13위에서 12위로 한 단계 뛰어올랐다.

지난해 경남 동계스포츠 사상 4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던 스키알파인의 강민규(거제 제산초6)는 금 2, 동 1개를 목에 걸었다. 스키알파인 남자초등부 회전 부문에 나선 강민규는 1분12초62의 기록으로 1위에 올랐고, 복합에서도 25초74로 가장 먼저 피니시라인을 통과했다. 하지만, 강민규는 슈퍼대회전에서는 아쉽게 3위에 그쳤고, 대회전에서는 실격 처리됐다.

김영욱(창원 창원중2)은 스노보드 남중 프리스타일, 창원데블스는 아이스하키 초등부, 빙상 쇼트트랙에서 이진희(창원 대방초6)가 남초부 1500m, 김서현(창원 장천초5)이 여초부 1000m에서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 처음으로 봅슬레이·스켈레톤, 산악 경기가 시범종목으로 개최됐다. 또한 이번 동계체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대회 운영 능력을 점검하고, 유망주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회였다. 최우수 선수는 빙상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일반부에서 4관왕에 오른 고흥욱(의정부시청)이 선정됐다. 제98회 전국동계체전은 2017년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제55회 도민체육대회

'열정과 투혼' 발휘

역대 최고의 350만 도민 화합 체전 평가
시부 창원시 · 군부 함안군 우승 차지

대회신기록 8개, 3관왕 9명 등 풍성한 기록 달성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 · 축하공연 등 도민 호응 이끌어





양산에서 펼쳐진 제55회 도민체육대회가 지난 5월 2일 '350만 도민이 하나되는 역대 최고의 화합체전'이라는 평가 속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역동하는 양산에서, 하나되는 화합체전'을 슬로건으로 4월 29일부터 나흘간 양산종합운동장을 비롯한 36개 경기장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시·군 임원 및 선수단 1만 325명이 27개 종목(정식 25, 시범 2)을 놓고 시부와 군부로 나뉘어 지역별 대항전으로 치러졌다.

대회결과 시부에서는 창원시가 우승을 차지했고, 군부에서는 함안군이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개최지인 양산시는 3위에 올랐으며, 개최식 입장상은 단정하고 통일된 복장을 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운동장에 들어선 창녕군 선수단에게 돌아갔다.

양산시는 지난해 인구 30만 달성에 이어 올해 시승격 2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도민체전을 역대최고의 모범적인 화합체전으로 승화시킨다는 목표로 체전준비에 최선을 다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대회 첫날 개최된 개최식 식전행사에는 3만여명의 도민이 종합운동장 주변에 군집해 도민체전 역사상 최초로 진행된 공군 블랙이글스 팀의 에어쇼를 관람하며 연신 감탄사를 자아냈다. 곤이어 크레용팝·김혜연의 축하공연과, 도민 화합을 위한 양산의 대표 춤 삼장수 기상춤 군무 퍼포먼스도 이어져 관람객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공식행사에서 양산의 우수 전통문화인 경상남도무형문화제 제19호 가야진용신제 길놀이를 시작으로 선수단이 입장했으며, 18개 시군 선수단 대표가 최선을 다해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선수단 선서를 했다.





곧바로 대회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성화점화가 이어졌으며, 특히 흥준표 경남도지사와 나동연 양산시장을 비롯한 18개 시장군수가 함께 도민의 화합과 안녕을 염원하는 '약속의 손' 퍼포먼스를 펼쳐 관객과 선수단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대회 마지막날 열린 폐회식에는 '4일간의 열정'이라는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과 함께 성적발표와 종합시상이 이어졌다.

시부 우승을 차지한 창원시는 복싱, 씨름, 검도, 골프, 사이클 등 다수의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하며 종합우승으로 대회 8연패를 차지했다. 창원시의 독주 속에 양산시와 김해시, 진주시가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김해시가 2위를 차지했다.

군부에서는 함안군이 거의 모든 종목에서 고른 성적을 내며 우승해 대회 8연패를 이뤄냈다. 2위는 농구, 배구, 씨름 등에서 좋은 성적을 낸 거창군이 차지했으며, 창녕군은 3위에 올랐다.

모범선수단에게 수여되는 화합상에는 의령군 선수단, 인정상에는 거제시 선수단, 장려상에는 밀양시 선수단, 모범상에는 진주시 선수단, 감투상에는 고성군 선수단, 질서상에는 하동군 선수단이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27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성료

내년
양산에서 만나요~





‘일류거제 희망경남, 함께뛰는 생활체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제27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이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거제시 일원에서 3일간의 열전을 끝내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350만 경남도민의 소통과 화합의 대축전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18개 시·군 선수단 8천8백여명이 참가해 궁도, 축구, 보디빌딩, 배드민턴, 육상, 체조, 게이트볼, 산악 등 모두 25개 종목(정식 24개, 시범 1개종목)에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기량을 맘껏 뽐내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우정을 다졌다.

가장 인상적인 입장식을 선보인 시·군에게 주어지는 최우수상에는 시부에 밀양시, 군부에 하동군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우수상은 시부에 사천시, 군부에 남해군이 차지했으며, 장려상은 시부에 창원시·통영시, 군부에 창녕군·함양군, 모범상은 시부에 진주시·김해시, 군부에 의령군·함안군, 화합상은 고성군·산청군·합천군, 스포츠7330상에는 시부 양산시, 군부 거창군이 차지했다. 또 거제시, 경남게이트볼협회와 경남축구협회는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축전 경기결과 시부에서 창원시가 농구, 배구, 보디빌딩, 정구, 족구, 축구(여자), 탁구, 합기도, 요가 등 9개 종목에서 탁월한 기량을 과시하며 최다종목 우승을 차지했으며, 군부는 창녕군이 게이트볼, 볼링, 자전거, 합기도 등 4개 종목에서 우승해 최다종목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 대축전 기간 내내 거제시는 거제웰빙장터, 거제국제시장, 프린지 공연, 드론 체험행사 등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으로 참가 선수단 및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10월 23일 오후 4시 거제시체육관에서 가진 폐회식에서 승패를 떠나 동호인간 우정을 나눴던 시·군 선수단은 내년 제28회 대축전 개최지인 양산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성황

제11회 경상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도내 어르신 생활체육 동호인 13개 종목에 3,600여명 참가
생활체육 통해 어르신들 건강수명 증대

‘제11회 경상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지난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아라가야의 고도 함안에서 도내 어르신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2일간의 열전을 끝내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회 첫날 열린 개회식에는 조규일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차정섭 함안군수, 김윤근 도의회의장, 조우성 도의회부의장, 이성용 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이만호 도의원, 박동식 도의원, 권민호 거제시장, 오영호 의령군수, 박영일 남해군수, 하창환 합천군수, 이병희 하동군 부군수, 김정선 함안군의회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 각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경상남도체육회 이사, 경남종목별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도내 18개 시·군에서 13개 종목에 출전한 어르신 생활체육 동호인 3,600여명을 격려했다.



조규일 서부부지사는 개회식 대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닌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이 만들어 낸 위대한 결과”라며, “어르신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좋은 여가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 참가자 중 최고령자인 김길수 선수(하동군·90세)는 그라운드골프 경기에 참가해 장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게이트볼에 김복순 선수(사천시·90세), 축구에 어용수 선수(함안군·76세), 배드민턴에 남숙자 선수(거창군·81세), 테니스에 신판규 선수(창녕군·79세), 탁구에 김원근 선수(진주시·83세), 국학기공에 이위도 선수(함안군·85세), 볼링에 이문형 선수(거창군·72세), 궁도에 김경규 선수(창원시·78세), 에어로빅스체조에 박경례 선수(의령군·87세), 정구에 최영석 선수(창원시·75세), 파크골프에 김정수 선수(김해시·85세)가 각각 장수상을 차지했다.



경남을 빛낸 리우올림픽 스타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밤을 더욱 뜨겁게 달궜던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단장 정몽규). 모든 운동선수들에게 올림픽은 '꿈의 무대'다. 한국은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를 획득해 종합순위 8위로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태극마크를 단 204명(남 103, 여 101)의 국가대표선수 중 경남 출신이거나 소속팀으로 또는 경남과 인연을 맺은 선수들이 다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주문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진주 출신 박상영(현 한국체대)은 불굴의 올림픽 정신을 제대로 보여줬다.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에게 큰 울림으로 전해졌다. 박상영의 펜싱 에페 결승전 경기는 말 그대로 기적에 가까운 대역전극이었다. 3세트 10-14로 밀리면서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벼랑 끝 절박함 속에 그는 '할 수 있다'를 외쳤고 마법처럼 주문은 통했다.

한국에 첫 메달을 안긴 양산 출신 유도 정보경(현 안산시청)의 은메달 획득은 감동이었다. 리우에서 그녀가 메달을 딸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정보경 역시 경남체고 3학년 때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선수 생명을 잃을 위기를 넘겼다. 이후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오뎅이처럼 다시 부활한 것이다. 결승전에서 아쉽게 절반패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역시 다음 올림픽이 기대되는 선수다.

창원시청 소속 김종현은 런던올림픽에 이어 리우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종현이 은메달을 딴 '50m 소총복사'는 부전공이었기에 '50m 소총 3자세' 금메달의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부담감 탓에 아쉽게 16위에 그치면서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그는 "더 준비해서 도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 거두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마산 출신인 배드민턴 여자 복식 정경은(현 KGC인삼공사)은 '값진 동메달'로 노메달 위기의 한국 배드민턴을 구했다. 정경은은 성지여고 시절 황혜영 코치의 지도를 받을 때부터 복식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 세계랭킹 1위 일본팀에 패해 금메달 획득은 좌절됐지만 동메달 결정전에서 중국팀을 세트스코어 2-0으로 꺾고 동메달을 따냈다.





한편 경남대(경영학부 98학번) 출신인 '한국 사격의 간판' 진중오는 베이징, 런던에 이어 공기권총 3연패를 달성했다. 진중오 역시 결승에서 6.6점을 쏘며 7위로 추락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혼신의 한발 한발을 더하면서 결국 금메달을 따냈다. 이로써 진중오는 올림픽 120년 역사 최초로 사격 개인전 3연패 기록을 새로 썼다.



역시 경남대(체육교육과 07학번) 출신인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김현우(현 삼성생명)는 16강전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하지만 패자부활전을 거쳐 올라온 동메달 결정전에서 김현우는 손을 잘못 짚어 팔이 탈골됐지만 끝까지 투혼을 발휘했다. 결국,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경기를 지켜본 국민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비록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역도 한명목(경남도청)과 박한웅(마산삼진고졸업 · 현 한국체대), 여자유도 박지윤(경남도청), 기계체조 유원철(도체육회), 남자육상(경보) 변영준(창원시청), 사격 권준철(창원시청)과 김은혜(경남체고졸업 · 현 기업은행), 조정 김동용(진주시청), 여자하키 조혜진(인제대), 여자배구팀 막내였던 이재영(진주 신명여고 졸업 · 현 흥국생명) 등은 경남 출신이거나 소속팀으로 모두 최선을 다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특히 경남대 레슬링 박치호 감독이 그레코로만형 코치, 2008년 베이징올림픽 복식 은메달리스트인 세아특수강 이경원 코치가 대표팀 여자복식 코치로 선수들을 이끌었다.

우리 경남 출신 선수들! 올림픽은 끝났지만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기를 바란다.

경남초·중학생종합체육대회 성료

체육영재 발굴 및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



2016년 경상남도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가 지난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7,528명의 시군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창원시를 중심으로 진주, 김해, 밀양, 고성 등 5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됐다.

초등부 남자는 18개 종목(시범4)과 여자는 15개 종목(시범3), 중등부 남자는 31개 종목, 여자는 24개 종목에서 우승을 놓고 한판 승부를 펼쳤다.

대회 결과 육상에서 4개, 수영에서 5개의 대회신기록이 나왔으며, 체조 이 건(김해 한얼중)은 8관왕에 올라 최다관왕이 됐으며, 이 밖에 체조 나희영(창원 합포중) 6관왕과 양궁 구범준과 양나영(창녕 창녕초) 5관왕이 나오는 등 유망주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대회 종합순위 1위는 금 156개, 은 122개, 동 113개를 획득한 창원교육지원청(시부)과 금 72개, 은 70개, 동 59개를 획득한 함안교육지원청(군부)에 돌아갔다. 2위는 김해교육지원청(시부)과 거창교육지원청(군부), 3위는 거제교육지원청(시부)과 고성교육지원청(군부)가 차지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평소 학교체육과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특히 체육영재 조기 발굴과 경기력 향상은 물론 학생들의 건강한 체력향상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회로 자존감을 높이고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켜 왔다.

이번 대회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경상남도체육회·경상남도가맹경기단체·창원교육지원청이 주관했다.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운영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



경남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는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휴업일에 대한 학생들의 스포츠·레저 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고, 청소년의 체력 강화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매주 토요일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4년에 시작해 올해 3년째를 맞이한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는 경남 초·중·고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는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학교안 프로그램'과 지역체육시설을 연계한 '학교밖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올해 학교안 프로그램은 도내 410개 학교가 참가해 농구, 배드민턴, 탁구, 축구, 뉴스포츠 등 618개 스포츠 교실을 운영했다. 학교밖 프로그램은 도내 46개소에서 볼링, 수영, 요트, 클라이밍 등 학교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스포츠 교실을 운영했다.

한편 도체육회는 학생들에게 체육을 가르치는 전문 강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지도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19일 마산대학교에서 토요일스포츠강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 자녀의 돌봄 및 교육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홈페이지 (<http://sat.sportal.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10회 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학교스포츠클럽 통해 인성 함양, 학교 폭력 Zero 실현



‘제10회 경상남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친구와 함께 운동하는 학교’를 슬로건으로 양산시 일원에서 개최됐다. 지난 1학기 동안 각 지역교육지원청 별로 리그전과 토너먼트를 거쳐 선발된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는 시·군 대표 학교스포츠클럽 719개팀 9,024명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경기 종목은 넷볼, 농구, 배구 등 20개 정식종목과 프리테니스, 국학기공, 에어로빅(힙합) 등 3개 시범종목을 합쳐 23개 종목이었으며, 참가 선수들은 공식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돼 있지 않은 순수 아마추어 스포츠클럽 학생들이다.

우승자(팀)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열린 ‘2016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경남대표로 참가해 농구에서 의령여고, 티볼에서 진주동중, 프리테니스에서 진주여중이 각각 우승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한편,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평소 자율적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체력증진, 활기찬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동안 같고 닳은 기량을 평가하고 되돌아보는 대회다. 학생들이 ‘보는 스포츠’에서 ‘참여하는 스포츠’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미드림(美-Dream)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도내 4개 학교 여중학생 대상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실시



도체육회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여학생의 운동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스포츠 관련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잠재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여중생 대상 자유학기제 스포츠 프로그램인 '미드림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16년 신규사업으로 처음 실시된 미드림 스포츠 프로그램은 종목 중심의 스포츠교실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육활동과 스포츠와 관련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중학교 중 자유학기제에 스포츠교실을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한체육회의 시범사업에 도체육회가 선정돼 도내 4개 학교(창원 창덕중, 마산제일여중, 밀양 밀성여중, 양산 웅산여중)에서 성황리에 시행됐다.

체육 과목 시간을 활용하는 미드림 스포츠 프로그램은 1주

차에 운동 수준을 사전 체크하고, 2~12주차에 체육활동과 진로탐색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14주차에는 사후 평가하는 순서로 총 14주 동안 운영했다. 2주~12주차에 진행된 프로그램은 댄스 프로그램인 미드림리듬, 근력·지구력을 기르는 서킷 프로그램인 미드림피트니스, 스포츠 관련 기관방문 및 강연의 미드림 미션, 직접 기술훈련과 게임을 하는 미드림 스포츠 등 스포츠와 관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미드림 스포츠 프로그램은 여학생에게 적합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육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여학생 체육활동의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 · 일본 · 중국과 스포츠 국제 교류



경상남도 여자청소년 농구 선수단은 지난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국제 체육교류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러시아 하바롭스크주 여자청소년 농구팀과 친선경기를 펼쳤다. 경상남도 하바롭스크주는 1996년 9월 14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2010년부터 상호 격년제로 방문을 하여 배구, 농구 종목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교류에는 삼천포여고 농구부 등 14명의 경상남도선수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국제경기를 통한 경기력 향상과 상호간의 우의를 다졌다.

또한 일본 홋카이도 선수단(단장 코지마히데토시 홋카이도미니배구협회장) 30명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거제시와 창원시를 방문해 배구동호인들과 미니배구 교류전을 가졌다. 한편 경남대학교 체육관에서는 후쿠쇼 대학과 경남대 학생들이 간 시범 경기를 펼치며 우의를 돈독히 했다. 1997년, 8종목 106명의 선수단으로 시작된 한·일 생활체육 국제교류는 매년 상호 초청·방문형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한·중 생활체육 동호인의 우호증진 및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인 '2016 한·중 생활체육 국제교류' 행사가 지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상해시에서 열렸다. 김경열 단장(본회 경기력향상위원장)으로 한 경남 선수단은 30명의 배드민턴 종목 동호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중국 상해시 배드민턴 동호인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한·중 생활체육 교류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상호 초청·과견 형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생활체육 안전교실 운영



도체육회는 시군체육회와 공동으로 생활체육 안전교실 일환으로 펼쳐지는 스포츠클라이밍과 오리엔티어링 교실을 열어 청소년들의 협동심을 기르고, 지속적인 신체활동으로 심신의 균형적 건강을 모도하고 있다.

스포츠클라이밍교실은 사천시와 양산시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됐다.

1기와 2기 각 20명씩 나눠 진행된 이번 교육은 클라이밍 스트레칭, 주요 사고사례별 대처법 교육, 톱로프 및 8자 매듭법, 퀵드로우 및 로프 클립, 다이내믹 확보법 등 안전수칙과 기술 습득 위주로 구성됐다.

오리엔티어링교실은 지난 10월 14일·29일 양산시와 통영시에서 각각 개최돼 '오리엔티어링'이라는 야외 체험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스포츠 참여 습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생들은 4~5명씩 조를 이뤄 오리엔티어링 참여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 교육을 받은 뒤 나침반과 지도사용법 등을 익혀 체험에 나섰다. 최근에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아웃도어 활동으로 남녀노소, 친구·연인·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레포츠로 각광 받고 있다.

스포츠안전재단이 주최하고 도체육회와 시군체육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생활체육 안전교실은 스포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하고 올바른 체육활동 방식의 교육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운영된다.



도내 4개 시·군 7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도체육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민 누구나 집 근처 학교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은 학교체육시설의 유휴 시간대(방과 후, 휴일) 개방을 통해 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시·군체육회에서 관리매니저와 지도자를 배치해 체육시설을 운영·관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내에는 사천시 노산초교와 삼천포여중, 고성군 하이초교와 동해초교, 하동군 하동초교와 하동여고, 산청군 산청초교가 지역사회를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확대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확보 차원에서라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체육시설을 개방한 학교는 학교안전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보험을 가입한다.

도체육회는 지역체육회와 함께 지역주민 및 동호회에 시설대관,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공하고 지역스포츠클럽간 대회 및 리그 개최를 통해 시설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개방학교 체육시설은 지역주민 자율이용 공간과 회원이용 공간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자율이용 공간에서는 지역주민이 운동할 수 있고 회원이용 공간에서는 자율운동 및 생활체육교실에 참여할 수 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시간은 평일은 방과 후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평일 60시간, 토요일·공휴일 12시간 등 월 최소 72시간이다.

생활체육 광장에서 ‘스포츠7330’ 실천해요~

생활체육 광장은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7330’ 운동 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시작하여 도내 16개 시·군 3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생활체육 광장을 통해 생활체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신규 동호인클럽 결성을 유도하는 것이 광장지도자들의 주요 역할이며, 지도자들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생활체육 광장은 지역 주민들의 스포츠 커뮤니티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 광장 운영 현황

시군구	운영장소	운영시간	프로그램	지도자
창원시	웅남주민공원	06:30~07:30	국학기공	윤동환
	반송공원	08:00~09:00	생활요가	임선자
	용마산공원	07:00~08:00	생활체조	심순영
	소담초등학교	18:00~19:00	필라테스	임선자
	만날제야외공연장	06:30~07:30	국학기공	홍순돌
	해운중학교	06:30~07:30	국학기공	백순미
	구암공원묘원	19:00~20:00	국학기공	하명숙
	석동체육공원	06:30~07:30	국학기공	박유진
	풍호공원	20:00~21:00	건강걷기	이순애
진주시	하대광장	21:00~22:00	생활체조	안민주
	신평광장	19:50~20:50	생활체조	이은정
통영시	아침광장	05:30~06:30	에어로빅	유수자
사천시	사천종합운동장	06:00~07:00	에어로빅	정영순
	동강아프리에체육공원	18:00~19:00	에어로빅	조은숙
김해시	장유체육공원	20:00~21:00	택견	김권철
	거북공원	06:00~07:00	국학기공	박미라
밀양시	삼문동야외무대	05:30~06:30	국학기공	박성화
거제시	웰빙공원광장	20:00~21:00	국학기공	문준우
양산시	웅상새벽광장	06:00~07:00	생활체조	최희숙
	양산천아침광장	06:00~07:00	국학기공	전부현
	양산위터파크	06:00~07:00	국학기공	권은정
의령군	의령군종합사회복지관	20:00~21:00	댄스스포츠	김정훈
	국민체육센터다목적운동장	05:30~06:30	생활체조	노진화
고성군	남산공원	06:00~07:00	국학기공	정해선
남해군	남해대학	06:00~07:00	요가	정재홍
	공설운동장	06:00~07:00	건강걷기	전상국
하동군	송림공원	06:30~07:30	생활체조	김정음
	옥종마을	19:30~20:30	힐링체조	최수남
	송림공원	19:00~20:00	파워워킹	김민나
산청군	산청읍주민자치센터	19:00~20:00	생활체조	이영옥
함양군	요가광장	18:00~19:00	요가	권덕희
	상림광장	06:00~07:00	에어로빅	김혜은
거창군	거창군 kt지점 앞	20:00~21:00	에어로빅	문명자
합천군	군민생활체육공원	20:00~21:00	생활체조	정은희

통합 경상남도체육회 창립 총회 및 현판식 개최



지난 2월 29일 경남도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대의원총회를 열고 통합 체육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총회를 열어 규약안 심의 의결 및 임원 감사 선임안을 의결했으며, 통합 경상남도체육회 초대 회장은 시·도지사가 당연직으로 회장이 된다는 규정에 따라 홍준표 지사가 맡았다. 대의원총회에 이어 통합 체육회 사무실에서 통합준비위원, 체육회 최우수 지도자 및 선수, 생활체육회 자랑스런 생활체육인상 수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이 개최됐다.

도종목단체 통합 추진 설명회 개최



지난 3월 22일과 6월 21일 창원 성산아트홀뷔페에서 (구)도체육회의 경기단체 전무이사과 (구)도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산하 도종목단체의 원활한 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체육회는 종목단체 통합 추진 매뉴얼, 회장선출 방법, 임원인준 절차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통합 경상남도체육회 첫 이사회 개최



통합 경상남도체육회 제1차 이사회가 지난 4월 7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통합이사회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당연직 회장으로, 박종훈 도교육감, 손교덕 경남은행장, 김진국 농협경남본부장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첫 이사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동의(안), 제11회 경상남도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계획(안), 제55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안), 201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계획(안), 제45회 전국소년체전 참가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정책포럼 개최



지난 6월 17일 오후 2시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 1층에서 지역 체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경남체육 정책 포럼이 열렸다. 체육지도자와 관련학과 교수 등 4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발전과 지난 2월 통합출범한 경상남도체육회의 역할 등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채재성 동국대 교수가 '경남체육 선진화를 위한 추진 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김기진 계명대 교수의 '통합 체육단체의 미래지향적 역할', 이강헌 창원대 교수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주제로 발제자로 나섰다.

경남선수단, 제97회 전국체육대회 결단식 갖고 필승 다짐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 앞서 경남선수단은 지난 9월 30일 창원 중앙중학교 체육관에서 결단식을 갖고, 16년 연속 상위권 진입을 다짐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류순현(경남도 행정부지사) 경남선수단 부단장과 정재환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지도자와 선수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배희욱 총감독은 경과보고를 통해 "우리 선수단은 지난 겨울 동계체력훈련을 시작으로, 80일간의 하계합숙합동훈련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으로 경기력 향상은 물론 정신력 강화에도 최대의 역점을 뒀다. 학교와 직장의 명예를 드높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불굴의 정신력으로 대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체전 경남선수단 해단식 가져



충남에서 개최된 제97회 전국체전('16.10.7~10.13)에 참가해 당당히 16년 연속 상위권 입상을 기록한 경남선수단의 해단식이 지난 11월 16일 도청 대강당에서 선수·지도자·임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남선수단은 46개 종목 1,667명이 참가해 금메달 84, 은메달 57, 동메달 101개, 종합점수 43,719점을 획득해 종합 5위를 달성했다. 이날, 홍준표 회장은 전국체전 종합입상 경기단체 회장, 전무이사 15명에게 공로패를, 단체경기 입상 및 개인단체입상 육성 공로 15개 기관, 체전 참가선수 육성 공로자 5명 및 도·시군 직장팀 공로자 10명에 대해 표창패를 수여하고 메달을 획득한 팀과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도내 생활체육지도자 217명 대상 워크숍 개최



지난 12월 5~6일 거제시 대명리조트에서 '2016 생활체육지도자 실기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전문지식과 이해력을 높여 현장 지도자로서 폭넓은 자질을 함양하고 지도자 상호 간 정보 교류 및 소속감과 일체감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생활체육 지도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론과 더불어 스캐터볼, 츄크볼, 킨볼 등 뉴스포츠 실기를 중점적으로 교육 받았다.

회원단체 임직원 워크숍 및 체육대회 개최



도체육회는 지난 12월 15일~16일 양일간에 걸쳐 회원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및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도체육회 임직원,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및 직원, 도종목단체 전무이사 또는 사무국장 등 모두 160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회원단체 임직원들의 소양 증진과 실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체육대회를 통해 구성원 간 화합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열었다. 워크숍 첫날에는 회원단체별 분임토의,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및 체육행사와 함께 이틀날 돌레길을 걷는 한마음행사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16년도 경남체육 유공자 시상식 개최



2016년도 경남체육 유공자 시상식이 지난 12월 22일 경남도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수상자 및 회원단체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최우수 선수상은 제97회 전국체전 롤러 2관왕과 한국신기록을 달성한 손근성(경남도청)과 제97회 전국체전 역도 3관왕을 차지한 이해주(경남체고), 최우수 지도자상은 도체육회 황창근 소프트볼 감독이 각각 수상했다. 그 밖에 우수선수상(67명), 지도자상(39명), 공로상(25명), 생활체육인상(3명), 경남도지사표창 수상자(20명) 현황은 52페이지 '2016년 경남체육을 빛낸 유공자'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기흥 제40대 대한체육회장, 대한민국 체육인 통합의 밤에서 공식 취임



대한체육회는 지난 11월 1일 오후 6시 30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 볼룸에서 제40대 대한체육회장 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한민국 체육인 통합의 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개최된 취임식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유관단체 임직원 등 대한민국 체육계와 정·재계, 지자체, 종교계 각계인사 1천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기흥 신임 대한체육회장은 취임사에서 “첫 통합 대한체육회장으로서 영광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체육인 여러분의 뜻과 의지를 모아 통합체육회가 그 기능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체육인이 화합하고 통합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 체육의 새로운 청사진 마련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1월 11일 오후 4시 올림픽회관 13층 회의실에서 제1차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를 개최하고 한국 체육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이귀남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현 정부의 체육 정책, 체육단체 통합, 대한체육회장 선출을 비롯한 한국 체육계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기흥 제40대 대한체육회장 공약사항 등 대한체육회 주요 혁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2016 스포츠영웅 명예의 전당에 김연아 영웅 헌액



대한체육회는 지난 11월 23일 11시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2016 스포츠영웅으로 선정된 김연아 피겨여왕의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피겨 금메달 및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피겨여왕’ 김연아 영웅을 대한체육회 스포츠영웅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는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을 비롯 시·도 및 회원종목단체, 국가대표, 체육원로, 일반 국민, 유관단체 임직원 200여 명과 보도진 150여 명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남체고 이희섭 선수의 삶을 바꿔준 복싱

도쿄올림픽 금메달
“부모님께 걸어드리고 싶어요”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2년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바실 로마첸코를 존경해요. 저처럼 작은 키에도 스피드와 디펜스가 뛰어나 배울 점이 많거든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지난 11월 26일 막을 내린 ‘2016 AIBA 세계유스선수권대회’가 끝난 직후 경남체고 복싱교실에서 2학년이 재학 중인 이희섭 선수를 만났다. 이희섭은 태극마크를 달고 처음 출전한 세계대회에서 프랑스 GRAU Enzo를 상대로 아쉽게 예선전에서 4:1로 판정패했다. 경기 중 손목이 상대의 팔꿈치와 부딪쳐 부상을 당해 아쉽다고 했다.

세계대회 전 지난 5월 열린 ‘2016 ASBC 아시아유스복싱선수권대회’에 첫 출전하여 그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23개국 150명 이상 참가하는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유스대회다. 이희섭은 가장 경쟁이 치열한 체급중의 하나인 52kg 이하급(플라이급)에 출전해 16강부터 3연승을 달리며 결승에 안착했다. 결승에서 일본의 츠스미 하야토로를 상대로 선전했지만 판정에서 아쉽게 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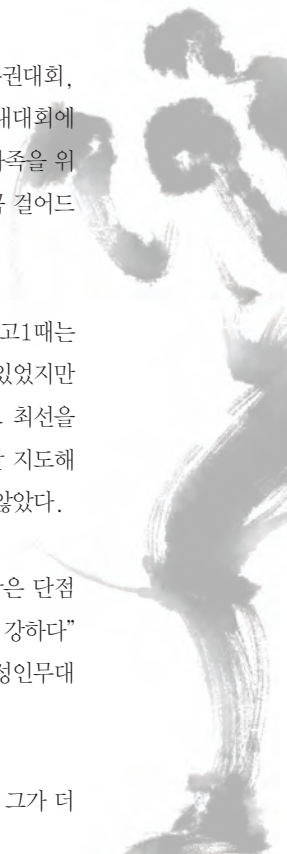


복싱을 시작한지 이제 겨우 4년 지났지만 올해 참가한 학생선수권대회, 대통령배대회, 체고대항대회, 협회장배대회, 전국계전 등 국내대회에서는 단 한 번도 패한 적 없이 금메달을 목에 건 이희섭 선수.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어머니와 투병 중인 아버지께 올림픽 금메달을 꼭 걸어드리는 것이 소원이라고 다짐한다.

중1때 부모님께 말씀 많이 부릴 때 복싱을 시작하게 되었고, 고1때는 잠시 학교 적응이 힘들어 운동을 그만둘까 고민이 많던 시기도 있었지만 감독님의 덕분에 잘 극복하고 이제는 자만하지 않고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 운동하겠다는 각오다. 또 “감독님과 코치님께서 자신을 잘 지도해 주시고 부족한 점을 많이 보완해줘서 감사하다”는 말도 아끼지 않았다.

경남체고에서 12년째 지도하고 있는 권송오 감독은 “신장이 작은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를 보는 눈이 좋고, 근력이 좋아 펀치가 강하다”며, “스스로 노력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해서 한 체급을 낮추면 성인무대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희섭 선수에게 복싱은 ‘삶을 바꾼 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가 더 잘 되었으면 한다.





차세대 양궁 기대주 등장

밀양 밀주초교 양궁부 임정민

방과 후나 주말이면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할 나이인 밀양시 밀주초등학교 6학년이 재학중인 임정민(13세). “양궁 선수인 언니를 곁에서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활 쏘는 것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남 양궁 유망주의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한다.

내년 전국소년체전 경남대표 선발전이 열리는 11월 11일 밀양공설운동장을 가을 바람이 제법 부는 속에서도 화살이 공기를 가르며 과녁에 꽂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유소년 선수들이지만 활을 쏘는 집중력과 과녁 중앙에 꽂히는 포인트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방불케 한다.

초등학교 경남대표인 임정민은 지난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열린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양궁 종목에 참가해 20m, 35m, 단체전에서 1위를 차지해 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또 25m 3위, 30m 5위, 개인종합 2위를 차지하는 등 유망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 뿐만 아니다. 지난 5월 열린 제50회 전국남여양궁중별선수권대회(25m)에서 1위, 7월 개최된 제27회 전국남여초등학교양궁대회(30m) 1위. 정신을 집중하고 활시위를 당기기만 하면 금빛 명중이다.





초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양궁을 시작해 3년 만에 전국 정상급 기량을 갖추게 되었다. 양궁선수 출신 어머니와 경남체고 양궁선수로 재학 중인 언니의 피와 재능을 물려 받은걸까? 앞으로 더 큰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다.

1988년 창단하여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밀주초등학교 양궁부 정미혜 코치의 체계적인 지도와 꾸준한 반복 훈련으로 탁월한 기량을 가진 선수가 되었다. “정민이는 성인 선수의 연습량 못지 않은 하루 5~6시간 훈련을 한다”며, “활을 쏠 때 심리적 상태가 중요한데 승부욕과 집중력이 남다른게 장점”이라고 정미혜 코치는 말한다.



국가대표의 꿈을 갖고 있는 임정민의 미래가 더 기대된다. 아직 개최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2024년 하계올림픽에서 임수민, 임정민 자매가 나란히 양궁종목 결승선에 금빛 과녁을 향해 힘차게 활시위를 당기는 장면을 기대해 본다.





실업배구 강자 양산시청 여자배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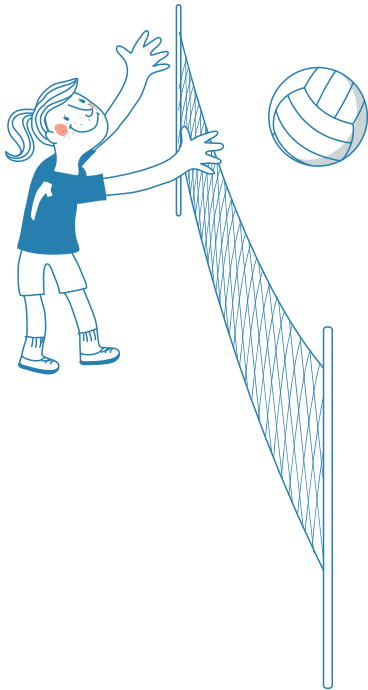


지난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예선부터 결승전까지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퍼펙트 우승을 거두고 약 1개월이 지나 스파이크 소리가 찌렁찌렁 울리는 양산시 배구전용구장. 2006년 4월 25일 창단되어 현재 강호경 감독, 김보균 코치, 이은아 주장을 비롯한 선수 11명. 총 13명으로 구성된 양산시청 여자배구단은 지난 10여년 동안 전국체육대회 우승 7회, 준우승 3회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또 한국실업배구연맹전을 비롯한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명실공히 강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양산시는 전국 실업배구팀 중 유일하게 체력단련장, 샤워장 등 최신 시설을 갖춘 전용배구장을 갖추고 있다. 배구단이 최강팀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양산시의 적극적인 투자가 한 몫하고 있다.

실업배구 최강자이다 보니 실제로 프로배구단으로 이직한 선수도 3명 있다고 한다. 주전선수 1~2명 빠지면 공백이 크지 않느냐는 질문에 강 감독은 “배구는 혼자서 하는 운동이 아니다”며, “그래서 끈끈한 팀워크와 강한 조직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년 1월부터 양산시청 여자배구단 지휘봉을 잡고 있는 강호경 감독. 진주시가 고향인 강호경 감독은 어린시절 부모와 함께 부산으로 이사하게 되어 부산 금강초등학교 4학년부터 배구인생을 시작했다. 그는 부산 동성고를 거쳐 부산대학교에서는 레프트 공격수를 주로 맡았지만, 전 포지션을 소화하는 멀티플레이 선수였다고 한다. 양산시청을 맡기 전까지는 포항여고 감독과 KT&G 프로배구단 수석코치를 역임했다.

LIG손해보험을 거쳐 실험상무 배구단에서 활약한 김보균 코치는 “팀플레이가 돋보이고,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갖춘 양산시청 배구단 코치를 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실업 최정상급 기량을 가진 선수들과 소통하며 좋은 결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 전국체전 3연패 꼭 이뤄내겠다”

배구단 주장을 맡고 있는 이은하 선수. 부담감을 가질 법도 한데 배테랑답게 당찬 포부를 밝혔다. 밀린 드라마를 몰아봐야 한다는 배구단의 막내 김선희 선수는 “매년 정상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은 크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있으니 앞으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양산시청 선수들은 주전과 후보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른 경기력을 갖추고 있다. 양산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양산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내년 시즌 전 대회 우승컵을 거머쥐길 기대해 본다.





함안 조수제 동호인, 게이트볼 달인에 도전

타지역에는 첫눈이 내리는 날. 함안군게이트볼협회 산인분회(회장 성낙영) 소속 동호인들은 쌀쌀한 날에도 불구하고 게이트볼을 치기 위해 산인면 게이트볼구장에 모였다. 산인면은 인구가 2,850명(2016년 10월 말 기준)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지만, 지난 4월 대천마을에 전천후 구장과 천연잔디구장, 화장실 등 계법 괜찮은 시설을 갖추게 되면서 게이트볼 바람이 불고 있다. 막대기(채, 스틱)로 공을 쳐서 관문(gate)을 통과시키는 경기인 게이트볼은 1980년대 초반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함안군에도 게이트볼이 도입되었다.

산인분회 총무를 맡고 있는 조수제 동호인은 회원들이 경기를 하는 내내 큰 소리로 작전을 알려주며 진두지휘한다. 2년 전까지 축구를 즐겨했다는 그는 2009년 8월 동네 어르신들 막걸리 한잔 받아들인다고 게이트볼장에 모였던 것을 계기로 게이트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때 5년 내에 도단위대회와 10년내 전국대회 우승을 목표로 세웠으며, 앞으로는 게이트볼 달인에 도전해 보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를 위해 체육시설에 더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

“게이트볼을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이웃·지역 간의 소통에 큰 역할을 기대”

“게이트볼이 도민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게이트볼이 노인스포츠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2~3세대가 함께 참가하는 대회를 만들어 참여하는 스포츠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에게 게이트볼을 배우기 위해 전국에서 동호인이 찾아와서 노하우를 전수 받아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의 게이트볼 실력은 어느 정도 될까?

그가 게이트볼에 쏟는 열정에 보여주듯이 지난 9월 7일부터 9일까지 경북 문경에서 열린 ‘제2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에서 함안 범수분회팀 주장을 맡아 D그룹 우승을 차지했다. 게이트볼은 “두뇌싸움”, “정석이 없다”, “공격은 있어도, 방어는 없다”며 그가 게이트볼을 대하는 철학이다. 그의 말에는 달인의 어투가 느껴진다.

61세부터 83세까지 연령대가 분포하고 있는 산인분회 회원들 18명은 심시일반 1개월에 1만원씩 회비를 내어, 전천후 구장과 화장실의 전기세도 내고, 구장 관리도 직접 한다고 한다.

올해 만65세인 조수제 동호인은 함안군의회위원장, 함안군재향군인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역 어르신들과 장애인들 대상으로 게이트볼을 가르치며 봉사를 하고 있다. 게이트볼 3급 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그는 “게이트볼은 격한 운동이 아니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운동”이며, “경기를 하다보면 만보이상 걷게 되어 하체 단련에도 좋다”고 말한다. 게이트볼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며 스트레스도 잊고 더불어 건강은 덤으로 받는 선물이라고 한다. 우연한 기회에 게이트볼을 시작했지만, 게이트볼 달인이 되는 그 날까지 그의 도전은 계속 진행중이다.



김해 인공암벽장

하늘을 오르는 기분이 궁금하다면
스포츠 클라이밍!

글/사진=윤거일 작가(스포츠에픽 대표)

김해시민체육공원을 가로질러 인공암벽장에 도착했을 무렵 애 국가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 조금 쌀쌀하지만 가사처럼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한 그런 일요일 오후였다.

노랗게 길가를 수놓은 낙엽을 밟으며 등산로를 거니는 사람, 돗자리를 펴고 먹거리를 즐기는 사람 등 저마다 들뜬 기분으로 가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을을 온몸으로 느끼는 이들이 있었다. 바로 스포츠 클라이밍(sports climbing) 동호인이었다.

안전한 벨트 로프를 착용했으나 바라보기만 해도 아찔한 암벽을 거침 없이 오르는 클라이머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다. 흡사 스파이더맨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근처를 지나던 행인들은 멈춰서 한참을 지켜보곤 했다. 스포츠 클라이밍이 참여 스포츠뿐 아니라 관람 스포츠로서 인기가 높다고 말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수직에 가까운 벽을 사람이 오르는 모습은 누구나 몰입하고 감탄하게 만든다.

무섭지는 않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하늘을 오르는 기분이 어떨는지 궁금해졌다. 그런 생각을 하기 무섭게 경남산악연맹 관계자가 직접 체험을 해보라며 스포츠 클라이밍을 권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장비를 착용하고 암벽에 섰다. 출발 전부터 팔이 아닌 다리를 잘 뻗는 게 중요하다고 신신당부를 들었다. 그러나 오르자마자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가기 시작했다. 머리는 팔과 다리를 움직이라고 했지만 본능은 홀드를 잡고서 놓지 않았다.

지상에서 가까울 때는 큰 티가 나지 않았는데 중반부터 아래쪽 사람들에게는 엉거주춤한 자세가 다 보였나보다. 슬쩍 내려다봤는데 정말 아찔했다. 떨어지면서 온 몸에 힘이 쭉 빠져 버렸다. 당장이라도 내려가고 싶었지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격려해주는 분들 때문에 계속 위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정점을 눈앞에 두고 내려와서 아쉬웠다. 너무 긴장했던지 팔다리가 풀렸다. 놀란 가슴이 가라앉을 때쯤 묘한 감정이 샘솟았다. 상쾌함, 다시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과 용기가

교차했다. 암벽과 로프에 의지해 하늘에 떠있는 그 짜릿함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공감하기 어려운 기분이었다. 사실 머쓱하기도 했다. 직접 올랐던 초급 코스보다 더 어려운 곳을 아이도 가뿐히 왕복하는 걸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니까 스포츠 클라이밍을 즐기는 어린 동호인이 생각보다 많아서 신기했다. 스포츠 클라이밍이 성장기에 있는 유·청소년의 신체 발달과 성취감, 집중력 향상에 좋은 운동으로 각광받는 까닭이라고 한다.

가장 눈에 띄었던 이진아 양은 초등학교 2학년으로 현장에서 가장 어린 동호인이었다. 교대로 이진아 양의 로프를 잡아주며 클라이밍을 하던 이들은 부모였다. 김해시에 거주하는 이성우 씨는 “우연히 스포츠 클라이밍을 접한 (이)진아가 재미를 느껴서 계속하더니 난이도 경기에서 입상까지 했다”며, “딸을 보조하다가 아내와 아들까지 클라이밍에 입문했는데 근력과 체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크게 난이도 경기, 속도 경기, 볼더링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자인(2016년 여자난이도 세계랭킹 1위), 천종원(2015년 남자볼더링 세계랭킹 1위)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어 스포츠 클라이밍 강국으로 분류된다. 아직 인프라나 선수층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역시 김자인 선수의 플레이를 좋아한다는 변정훈 씨는 경남에서 4년째 선수 생활을 겸하고 있다. 그의 본업은 소방관이다. 틈틈이 시간을 내서 훈련을 하고 대회 참가를 위해 휴가를 반납할 정도로 열성적이다. 덕분에 경남도민체육대회에서 상위권 입상을 놓치지 않는 지역의 대표적인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특히나 속도 경기에 강해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기도

했다. 말 그대로 누가 더 빠른 속도로 정해진 목표점에 오르는지를 겨루는 경기인데 눈 깜짝할 사이에 고지에 올라 명물 허전을 실감케 했다.

변정훈 씨는 “아직 경남의 선수층이 두텁지 않지만 동호인이 계속 늘어나서 내년에는 새로운 선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포츠 클라이밍에 입하는 분들을 보면 모두 웃고 있는데 방금 클라이밍을 하고 내려와서도 자기 차례를 기다릴 정도로 매력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 클라이밍은 1988년쯤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꾸준히 동호인구가 늘어났지만 엘리트 종목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된 건 비교적 최근이다. 종목을 대표하는 인



기 스타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 여전히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남자일반부만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상태다. 하지만 스포츠 클라이밍이 2018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과 2020 도쿄 하계올림픽에서 잇달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경남산악연맹 김재수 회장은 스포츠 클라이밍과 유사한 아이스 클라이밍도 덩달아 종목의 입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이스 클라이밍의 경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쇼케이싱 종목으로 선정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활동 무대가 넓어지는 만큼 우수한 선수 확보 및 양성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김재수 회장은 “스포츠 클라이밍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김해 인공암벽장 같은 시설이 더 생겨야한다”며, “목포시와 울주군의 인공암벽장을 모범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고 했다.

김해 인공암벽장은 경남 최초로 국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진 야외 인공암벽장이다. 그래서인지 경남에서 실내 인공암벽장과 동호회가 가장 활성화된 지역도 김해시다. 현재 경남에는 열 곳이 조금 넘는 실내 인공암벽장이 존재하는데 김해에만 네 곳이 위치해있다. 그 외 창원, 진주, 양산, 거제, 통영, 거창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

도내 스포츠 클라이밍 동호인과 인프라가 늘어나고 유명한 선수도 여럿 나오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하늘을 오르는 짜릿한 기분을 더 많은 도민들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왕이면 우리 지역의 김해 인공암벽장에서!

- ▶ 김해 인공암벽장의 운영시간은 하절기(4~10월) 13~22시이며, 동절기(11~3월)는 9~18시로 달라진다. 일반 이용료는 1인당(어른, 2시간 기준) 1,500원이다. 이용 신청 및 문의는 관리사무소(055-339-8866)에 하면 된다.



2016년 경남체육을 빛낸 유공자



체육상 수상자 현황 >> 훈격 : 경상남도체육회장 표창

최우수상 부문

부 문	종 목	성 명	소 속
최우수선수상	역도	이해주	경남체고
	롤러	손근성	경남도청
최우수지도자상	소프트볼	황창근	도체육회

우수선수상 부문

종 목	성 명	소 속	종 목	성 명	소 속
육상	김예찬	거제국산초	유도	이예랑	통영중앙중
육상	최선재	경남체고	유도	홍진주	마산대
육상	김병준	국군체육부대	검도	이지용	창원시청
육상	남수환	한국체대	양궁	임해진	창원대
육상	박성수	한국체대	양궁	임정민	밀주초
육상	배유일	한국체대	사격	김민수	경남대
육상	이지우	한국체대	사격	김종현	창원시청
수영	양재훈	경남체고	사격	김진일	국군체육부대
축구	이은규	남해초	체조	정유정	한려초
정구	김기성	창녕군청	체조	차예빈	양지초
농구	김유리	삼천포여중	체조	권 준	마전초
농구	현윤송	삼천포여중	체조	임재한	연초초
배구	이은아	양산시청	체조	유원철	도체육회
탁구	원지은	창원대	하키	이성민	김해서중
탁구	박효원	창원대	펜싱	임 호	경남체고
자전거	김수현	창원경일여고	펜싱	박혜찬	진주기계공고
복싱	고영우	통영중	조정	김동용	진주시청
복싱	조보성	경남체고	롤러	임진선	경남도청
복싱	이희섭	경남체고	롤러	이호탁	김해분성초
복싱	배승현	경남체고	롤러	김준우	동진중
복싱	장은아	도체육회	롤러	김이지	자은초
복싱	김도현	남해군청	근대5종	김선진	경남체고
역도	강윤희	경남도청	보디빌딩	김영환	도체육회
역도	조유미	경남도청	보디빌딩	김용규	도체육회
역도	한명목	경남도청	보디빌딩	박인정	도체육회
역도	정기삼	경남도청	보디빌딩	김진수	경남체고
역도	임영철	경남도청	우슈	박승모	도체육회
역도	황인창	경남체고	우슈	정인영	도체육회
역도	방서현	경남체고	우슈	유원희	도체육회
역도	이지수	영운중	철인3종	송한빛	총렬여중
역도	박예인	고성여중	철인3종	오유나	총렬여중
역도	손아라	고성여중	철인3종	김지환	통영시청
씨름	강재승	인평초	당구	허정환	경남당구연맹
유도	양지민	통영초			



지도자상 부문

종 목	성 명	소 속	종 목	성 명	소 속
육상	허희선	거제국산초	검도	김진옥	창원시청
육상	김정훈	함안군청	양궁	정미혜	밀주초
축구	박진희	남해초	양궁	윤영일	창원대
야구	김재울	마산동중	사격	한희성	경남대
정구	김용국	창녕군청	체조	민호룡	김해한얼중
농구	신원화	사천시청	체조	이재순	도체육회
배구	강호경	양산시청	체조	박선형	한려초
탁구	오윤경	창원대	하키	김성훈	김해여중
탁구	전부곤	창원남산고	하키	백용상	김해서중
자전거	정수량	창원경일여고	펜싱	김영호	진주기공
복싱	김창식	통영중	펜싱	정순조	경남체고
복싱	김명필	경남체고	롤러	김정순	경남도청
레슬링	노남선	경남대	롤러	이준희	경남도청
역도	조혜정	영운중	롤러	우준영	자은초
역도	이규철	거창대성중	보디빌딩	하경태	경남보디빌딩협회
역도	이은영	고성여중	우슈	이지현	경남체고
역도	김하나	경남체고	우슈	제응만	도체육회
역도	조익래	경남체고	철인3종	김재필	통영시청
씨름	모제욱	경남대	근대5종	전서윤	경남체고
유도	박용현	통영초			

공로상 부문

종 목	성 명	소 속	직 위	종 목	성 명	소 속	직 위
펜싱	김희중	진주제일중학교	펜싱감독	펜싱	김갑준	경남체육고등학교	펜싱감독
보디빌딩	김성환	경남보디빌딩협회	사무국장	-	정상열	양산시체육회	사무국장
역도	김순희	경상남도청	역도지도자	정구	최용민	경남정구협회	전)전무이사
배구	서석만	창원시배구협회	회장	배구	여성표	경남배구협회	전)전무이사
씨름	현재우	인명초등학교	씨름지도자	승마	서성호	경남승마협회	전)전무이사
양궁	강인석	경남양궁협회	부회장	하키	허상영	경남하키협회	전)전무이사
탁구	이강현	창원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펜싱	정순조	경남펜싱협회	전)전무이사
체조	강홍수	경남체조협회	이사	조정	강기배	경남조정협회	전)전무이사
육상	김요한	양산시육상연맹	회장	근대5종	최재현	경남근대5종연맹	전)전무이사
검도	김두길	경남검도회	부회장	보디빌딩	남성부	경남보디빌딩협회	전)전무이사
복싱	안병오	경남복싱협회	전무이사	배드민턴	노순미	경남배드민턴협회	전)전무이사
우슈	정해국	경남우슈협회	회장	-	송상섭	창원시체육회	전)사무처장
배드민턴	박성현	한국국제대학교	사회체육학과장				



생활체육인상 수상자 현황 >> 훈격 : 경상남도체육회장 표창

부 문	소 속	직 위	성 명
조직상	밀양시체육회	실무부회장	민경갑
지도자상	양산시체육회	사무국장	김진호
신인상	창원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박서현



경상남도지사 표창 수상자 현황

부 문	소 속	직 위	성 명
지역 생활체육진흥	통영시체육회	고문	진상대
	밀양시체육회	주임	양해주
	양산시체육회	이사	정성규
	양산시체육회	이사	정진규
	의령군체육회	사무국장	이주원
	하동군체육회	사무차장	오동환
	합천군체육회	부회장	김동연
	경남야구소프트볼협회	부회장	박만경
경남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남공도협회	회장	오연이
	도체육회	대리	정영호
경남생활체육대축전 개최	경남배드민턴협회	사무국장	정대운
	도체육회	대리	이현택
생활체육지도자	창원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장영희
	진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홍정하
	김해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오혜진
	남해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정희진
	산청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김홍우
우수 생활체육단체	거제시체육회		
	합천군체육회		
	경남검도회		



창원기계공고 3학년이 재학 중인 정윤혁 선수 (우측에서 2번째)가 제9회 전국체전 경륜경기에서 역주를 하고 있다. 정윤혁 선수는 단체스프린터, 경륜, 스프린트 종목에서 우승해 3관왕을 차지했다.



선명여고 배구부 선수들이 제9회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지도해준 김양수 감독을 헝가래하고 있다.



창원시청 소속 정수혜 선수가 지난 10월 12일 열린 전국 체전 높이뛰기 결승전에서 바를 넘고 있다. 이날 정수혜 선수는 1m73cm를 기록해 동메달을 차지했다.



제45회 소년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남해초등학교 축구부의 경기장면



지난 10월 14일 통영시에서 열린 오리엔티어링캠프에서 동원중학교 학생들이 해양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경남체고 2학년 재학 중인 박한솔 선수가 제97회 전국 체전 역도경기(동상)에서 바벨을 들어올리고 있다. 박한솔 선수는 이날 대회에서 아쉽게 4위를 기록했다.



창원시청 소속 김동현 선수가 제97회 전국체전 사격경기에서 과녁을 향해 격발 준비를 하고 있다. 김동현 선수는 50m소총복사, 50m소총3자세 종목에서 우승해 2관왕을 차지했다.



경남체고 2학년 재학 중인 이수관 선수(왼쪽)가 울산광역시 선수를 상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 이수관 선수는 태권도(-80kg)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남대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오현경 선수(형살바)가 서울특별시 선수를 상대로 들배지기 기술을 걸고 있다.



리우올림픽 직후 도체육회를 방문한 펜싱 에페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박상영 선수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체육회 소속 유원철 선수는 제9회 전국체전 체조경기에서 환상적인 링 연기(십자 버티기)를 펼치고 있다. 유원철 선수는 링, 평행봉, 개인동합에서 우승해 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경남도민일보 제공

사천시청 여자 농구부 윤나리 선수가 제9회 전국체전 준결승에서 충남 선수를 제치고 슛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67:30으로 크게 이겼으나 다음날 김천시청과 붙은 결승전에는 아쉽게 패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경남도민일보 제공

여고부 최강자 선명여고 배구 선수들이 제9회 전국체전에서 수원전산여고와 결승전에서 공격이 성공하자 환호하고 있다. 이날 선명여고는 세트점수 3:0으로 이겨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4월 29일 양산시청 광장에서 나동연 양산 시장이 양산초등학교 축구부 주장으로부터 제15회 도민체육대회에 성화를 전달받고 있다.



도체육회 소속 이종찬 우수선수가 제15회 도민체육대회에서 장권을 시연하고 있다.



제15회 도민체육대회 야구경기에서 양산물고교와 김해고가 경기를 펼치고 있다.



지난 6월 17일 창원대 종합교육관에서 열린 '2016 경남체육 정책포럼'에서 김재구 경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채재성 동국대 교수, 이강현 창원대 교수, 김기진 계명대 교수, 박승엽 창원대 교수, 장성동 창원문성대 교수가 통합 체육단체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한국, 일본, 중국대표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2회 경남플라이디스크연맹배 대한민국 거츠(GUTS)선수권대회' 경기 장면

지난 11월 12일 경남축구협회가 주관한 18개 시·군축구협회 임원 한 마을 축구대회에서 참가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체고 재학생인 근대5종 김선진 선수가 제9회 전국체전에서 위르 플인한 후 어머니와 정수용 감독으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도생활체육대축전 축구대회에 참가 선수들이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무원인 서형우씨는 스킨스쿠버 입문 1년만에 다이빙 100회를 달성했다.



제9회 전국체전에서 마산용마고 선수들이 서로 격려를 하며 경기에 임하고 있다. 마산용마고는 이번 대회에서 강한 인상을 심어줬지만 아쉽게 동메달을 차지했다.



지난 5월 15일 열린 제9회 함안독방 에코싱싱 전국자전거대축전에서 500여명의 동호인이 출발하고 있다.



제10회 한산대첩기 생활체육 전국남·여배구대회가 전국 172개팀 3,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6월 10일부터 3일간 통영시에서 열려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제12회창녕군생활체육대회가 지난 9월 25일 3,000여명의 선수 및 동호인이 참가해 열렸다. 사진은 개회식 장면.



제23회 고성군생활체육대회가 지난 10월 1일 1,300여명의 선수 및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사진은 9월 25일 사전에 열린 배드민턴경기 장면.



제55회 도민체전에서 보더빌딩 경기에서 시군선수들이 심판과 관중들을 향해 Front Double Biceps(전면 이두근 포즈)를 취하며 군풍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8월 30~31일 일본 홋카이도 미니배구 선수단이 거제시를 방문하여 도내 배구 동호인과 친선경기를 펼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대 1학년 재학 중인 임해진 선수가 제97회 전국체전(6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후 과녁을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다.



제97회 전국체전에서 경남체고 노희경 선수가 항지정보산업고와의 핸드볼 경기에서 슈트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국 리슈이에서 개최된 제17회 아시아롤러스케이팅선수권대회에 참가한 경남도청 손근성 선수가 역주하고 있다. 손근성 선수는 트랙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하며 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경남당구연맹 소속의 허정환 선수는 지난 12월 18일 이집트 후쿠гада에서 열린 '후쿠гада 세계3쿠션 당구월드컵'에서 37번째 월드컵 도전만에 생애 첫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월드컵 우승으로 허정환 선수는 세계 랭킹이 17위에서 10위로 상승했다.



통영시청 소속 김지환 선수가 제97회 전국체전 철인3종(올림픽코스 51.5km) 경기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김지환 선수는 개인단체전 2관왕을 차지해 경남이 철인3종 종합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창원시체육회는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일본 오가키시와 청소년 스포츠(축구) 교류를 가졌다. 오가키시 축구소년단이 교류기간 중 창원 상남초등학교와의 친선 경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문체육인 상해공제

”

프로스포츠 및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에 등록된 선수가 전
문체육 단체의 관리하에 행하는
운동경기(연습, 경기를 위한 이
동 중 교통상해포함)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상해를 보상하는 공제상품

프로 및 대한체육회 등록 선수 가입 가능

전 종목 전문(엘리트) 체육인을 위한 국내 최초 상품 (프로, 아마 가능!)
운동 중 상해 보상 (대회, 훈련, 이동 중 교통 상해 등)
심각한 부상 시 후유장애 진단을 통해 추가 보상

담보(보장한도) 내용(시행일 2016. 7. 1일 보험종기일 2017. 6. 30)

담보	보상한도
상해입원일당	3만원
골절수술비	5십만원
골절치료비	5십만원
프로아마추어단체상해사망	1억원
프로아마추어단체상해후유장해	1억원
스포츠단체 상해보상금	1억원
상해소득보상금	1억원

※ 2016.12.31 보험 종기일 계약도 가능

종목별 유형분류

A형	B형	C형	D형
공도, 사격, 볼링, 양궁, 보디빌딩, 당구, 바둑, 에어로빅	육상, 테니스, 정구, 탁구, 핸드볼, 역도, 체조, 농구, 배구, 수영, 검도, 펜싱, 조정, 요트, 카누, 골프, 근대5종, 세팍타크로, 컬링, 스쿼시, 댄스스포츠, 오리엔티어링, 크리켓	유도, 자전거, 씨름, 럭비, 야구, 승마, 하키, 산악, 배드민턴, 롤러인라인, 수상스키웨이크보드, 수중핀수영, 우슈, 소프트볼, 봅슬레이,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태권, 루지, 축구, 카바디, 빙상	복싱, 레슬링, 스키, 아이스하키, 태권도, 공수도, 향공, 격투싱

※ 가입 대상 : 가입일 현재, 프로 스포츠단체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에 등록된 선수, 지도자

특징

- 종목 위험도에 따라 4가지 유형별 분류
- 전 종목 전문(엘리트)체육인을 위한 국내 최초상품(프로, 아마가능)
- 운동 중 상해 보상 대회, 훈련, 이동 중 교통 상해 등)
- 심각한 부상 시 휴유장애 진단을 통해 추가 보상 가능

안전회비(보험료)

(원)

구분	15세 이상	15세 이하
A형	114,000	80,000
B형	116,000	82,000
C형	152,000	118,000
D형	155,000	120,000

※ 가입 기간에 따라 안전회비 상이

가입안내 스포츠안전재단 02. 425. 5953 유현진주임



스포츠안전재단(이사장 이기흥) 주요 안전공제 소개

- 1) 주최자배상공제 : 행사 주최자의 배상책임 및 참가자 운동중 치료비 담보
 - 2)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공제 : 체육시설 소유/운영자의 재산 및 배상책임 담보
 - 3) 참가자안심세 : 행사 참가자 운동 중 치료비 담보
 - 4) 전문체육인 상해공제 :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록선수 운동 중 상해담보
 - 5) 단기형공제 : 행사 참가(운영)중 선택 종목 활동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 ※ 자세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협력기관인 스포츠안전재단(대표전화 1899-0547)에 문의바랍니다.



건강플러스



도핑(Doping)! 건강상의 위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지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금지약물들은 불법적으로 제조, 판매되어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으며 남용시 건강상의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다. (금지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약물이라고 해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사용 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승인 받아야 한다)

2가지 이상의 약을 섭취하였을 때

다양한 종류의 약물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단일 약물에 의한 부작용보다 약물을 조합하여 섭취 하였을 때 훨씬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다.

약물은 중독 되는가?

약물은 금단현상을 초래하여 신체적, 정신적인 의존성을 만든다. 중독에 따른 장기적인 약물의 남용은 결과적으로 대량의 약물 섭취를 초래하여 영구적이며 회복 불가능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이란?

경기력을 향상시킬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금지약물을 섭취하여 도핑테스트 결과에서 금지약물 양성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만을 도핑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금지약물을 섭취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10가지 도핑방지규정 중 하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시 자동적으로 도핑으로 정의된다. 또한 도핑방지규정 위반은 선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도핑테스트를 포함한 전반적인 도핑관리과정의 어떠한 부분에 대한 부정행위 및 부정행위 시도, 금지 약물 및 금지방법의 소지 및 부당거래 항목을 위반하는 코치와 선수지원원역시 제재가 부과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무엇이 도핑방지규정 위반행위를 구성하며, 금지목록에 포함된 약물과 방법을 알아 할 책임이 있다.



금지약물 섭취 시 주의사항

선수도 질병이나 부상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약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처방 받은 의약품에 금지약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엄격한 책임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금지약물도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수 각 개인의 의무이며,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선수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1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의사에게 자신은 도핑 검사 대상자인 운동선수라는 것을 명확히 밝힐 것
의사에게 최신 금지약물 리스트 제출하여 당신이 금지된 약물 또는 방법으로 치료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확인할 것 (금지목록은 1년 단위로 개정본이 발행되며, 의사라고 해서 모든 금지약물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음)

2 처방전이 필요없는 의약품을 섭취 할 때

조제한 의약품에 금지약물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것

3 금지약물이 포함된 의약품이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같은 효능을 가진 대체제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 목록에 포함된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하도록 허가된다. 그러나 반드시 금지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섭취하기 이전에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지 약물과 주요 부작용

S1 동화작용제

간	특히 경구치료 시 간 효소를 손상시키고 그 결과로 간염, 간암 유발
호르몬의 피드백조절	호르몬 생성 감소로 인해 손상되고 부분적으로 비활성화
혈액지질	심근경색의 위험증가
심혈관계	체액에 증가된 침전물이 혈압을 올려주고, 그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 유발
자율신경계	얼굴 근육이 마비되거나 손발이 떨림
심신	공격적 성향 증가
성장	청소년기에 근육강화제는 골 단편의 골화를 발생시켜서 성장을 멈추게 함
여성의 남성화	굵어진 목소리, 체모증가, 가슴축소, 월경주기 혼란

S2 펩티드 호르몬, 성장인자 및 관련약물

성장호르몬(hGH)	손, 발, 턱, 이마의 둥근 부분, 코, 그리고 내부기관과 같은 신체 특정부분에서 기형발생, 당분해 능력의 저하, 근육의 손상, 관절약화 및 심장 질환 초래
Erythropoietin(EPO)	혈압이 올라가고 높은 점성의 혈액이 폐, 심장, 뇌에서 혈관 폐색(혈전)으로 인한 사망 유발
Corticotrophin(ACTH)	내인성 축적물(당, 지방)의 파괴, 염증, 감염

S3 베타-2 작용제 혈당상승, 저칼륨혈증, 지진, 심계항진, 두통, 관절통, 배통, 근경련/수축, 근육통/근염

S4 호르몬 및 대사 변조제 얼굴홍조, 월경불순, 설사, 메스꺼움, 구토, 간독성, 관절염, 골절, 골다공증 등

S5 이노제 및 기타 은폐제 경련, 탈수, 무력감, 혈압강화, 전해질 불균형, 장손상, 남성의 발기불능, 여성의 월경주기의 혼란

S6 흥분제 의존, 두통, 진전 불안, 발열, 어지럼증, 혼돈, 통증, 피로감, 심혈관계 스트레스 증가 등

S7 마약류 중독성이 강한 약물로 흥분, 신경과민, 불안, 심리적 문제 유발, 환각, 정신착란

S8 카나비로이드 단기 기억능력 손상으로 환각상태와 정신병적 행동을 유발

S9 부신피질호르몬 뇌하수체 기능저하, 면역력 저하, 골다공증, 고혈당증

P1 알코올 심장운동기능의 손상, 반응시간·조정력·움직임·사고력 등의 손상

P2 베타차단제 천식이 있는 사람에게 기관지 경련, 심장기능에 중요 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심장마비 등

※ 금지약물 검색 및 금지목록 국제표준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www.kada-a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주일에 세번이상 하루30분

스포츠 733^h으로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